



心實愛世  
攝信慈度

본회는 동문상호간의 우의증진과 모교의 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사업을 전개한다.  
1976. 10. 15. 등록번호 라 2143호 월간 비매물

# 東友會報

1989年(檀紀 4322年) 3月 31日 第140號 [1]

발행인 鄭在哲  
편집인 申益炫  
인쇄인 張明錫

東國大學校 總同窓會  
서울특별시 종로구 관훈동 192-18  
성화빌딩 12층  
전화: 733-3993(代)  
733-3991, 3992, 3993

우편대체 012328-31-0525669  
은행지로번호 7500891

## 제 15대 會長에 鄭在哲(현회장) 再選



◆ 鄭在哲회장이 신입원사를 하고 있다

### 제51차 定期理事會 성료

임원선출 및 예결산안, 회칙개정 등 審議해

본회 제51차 定期理事會가 지난 16일 오후 7시 프라자호텔 덕수홀에서 회장단 및 상무이사, 이사등 본회임원 162명(위임임원 120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개최됐다.

본회 金東英부회장이 임시의장으로 선출돼 진행된 이날 정기이사회에서는 제15대 總同窓會會長에 鄭在哲현회장을 만장일치로 재선임하고 회장단선임은 회장에게 위임하는등 임원선출및 예결산안 승인등의 안건을 심의함으로써 본회는 새 求心点아래 새도약의 발판을 마련했다.

(관련기사 3·5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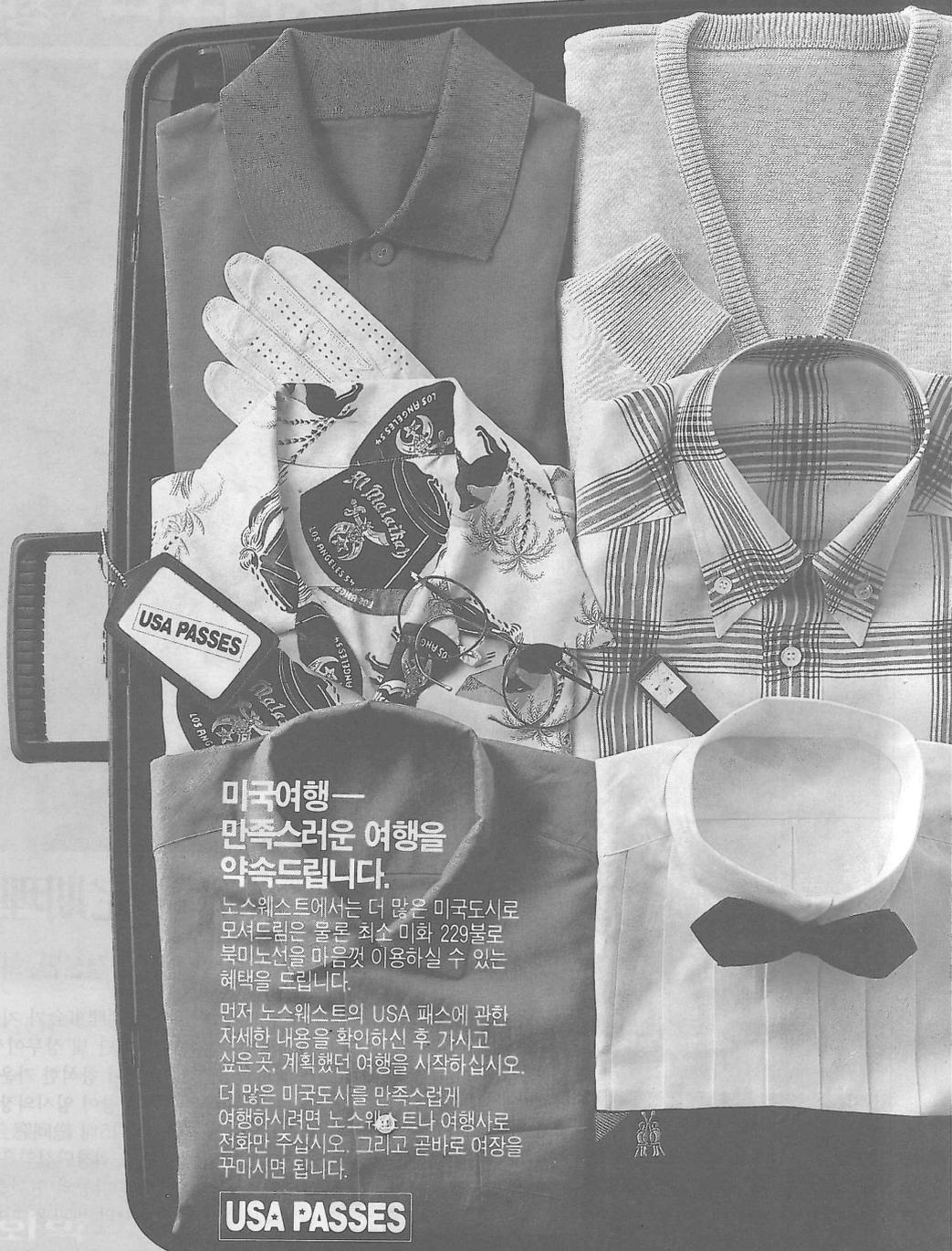


◆ 축사를 하고 있는 俞族인근



◆ 회의를 베푼 임원진 모습

NORTHWEST



미국여행 —  
만족스러운 여행을  
약속드립니다.

노스웨스트에서는 더 많은 미국도시로  
모셔드림은 물론 최소 미화 229불로  
북미노선을 마음껏 이용하실 수 있는  
혜택을 드립니다.

먼저 노스웨스트의 USA 파스에 관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신 후 가시고  
싶은곳, 계획했던 여행을 시작하십시오.

더 많은 미국도시를 만족스럽게  
여행하시려면 노스웨스트나 여행사로  
전화만 주십시오. 그리고 곧바로 여장을  
꾸미시면 됩니다.

**USA PASSES**

LOOK TO US @ NORTHWEST AIRLINES

# 동창회 自立運營 基盤조성

## 51次 정기이사회 鄭在哲회장 취임인사서 밝혀

### 豫決算·사업계획안 통과...회칙 改正도 副會長·理事등임원선임은 會長에 위임

本會 제51차定期理事會가 지난16일 오후7시 프라자호텔에서 수습에서 임원162명(위원장 포함)이 참석한 가운데 열려 제15대총동창회장인 鄭在哲(52정지) 現會長을 만장일치로 재선입하는 등 5개안건을 심의하고 본회를 이끌어갈 제15대 임원진을 출범시켰다.

金東英(60정지·본회副會長) 임시의장의 주재로 열린 이날定期理事會에서는 本會 1988년도 주요업무보고, 1988년도 결산보고보고 및 승인, 제15대 임원선출, 1989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안 승인의등을 심의하고, 東國100주년을 대비하여 本會 自立運營의 기틀을 강화하기 위한 제15대 임원진의 합심출발을 다짐했다.

이날 임기2년의 제15대 총

동창회장으로 선출된 鄭在哲회장은 취임인사를 통해 『그간 동문여러분의 聲援속에서 8萬 동문사회의 발전과 단합을 도모하며 각종 모교추진사업을 펼쳐왔고, 이제 4억여원에 달하는 基金을 바탕으로 누구누구가 회장을 맡아도 큰어려움은 없을 것』이라고 말하고 『그러나 저에게 보한인의 짐을 맡겨주신 것은 여러사업들을 잘 마무리해 달라는 뜻으로 알고 더욱 열심히 일하겠다』고 신임소감을 밝혔다.

鄭회장은 또 『현재 당면과제는 동창회 자립운영의 기틀 마련과 모교100주년을 위한 대대적인 후원사업』이라고 전제하고 『동문 모두의 힘을 합쳐 이러한 사업들을 잘 매듭짓고, 후배들에게 자랑스럽게 물려줄 수 있도록 다짐해 노력하자』고 말해 뜨거운 박수를 받았다.

이어 金東英회장은 축사에서 『오늘의 발전이 있기까지 애써오신 회장단이하 이사여러분께 감사한다』고 말하고 『자랑스러운 동국을 위해 더욱 대동단결해나가지』고 밝혔다.

한편 이날 정기이사회에서는 회칙중 제8조 3항의 이사를 500인내외로, 상무이사를 100인내외로 증원하는 회칙개정안을 통과시켰으며, 부회장 약간인을 비롯한 회장단 구성을 신임회장에 위임하고 제15대 이사선임은 신임회장에게 위임함으로써 본회는 새내심활태세 도약의 전기를 맞게 되었다.



◇51차 정기이사회에서는...  
한우 회관건립등 동창회 自立運營체제의 확립과 각종 基金의 확충으로 동국발전에 기여하기로 뜻을 모았다.

## 본회 理事추천 접수중

본회 사무국에서는 지난16일 제51차 정기이사의회의 제15대 임원선입에 관한 의결사항에 따라 각급단위支部·支會를 중심으로 15대理事를 접수한다. 총동창회 상무이사 및 이사선임은 각支部 및 支會別동창회나 직장별東友會의 추천, 또는 본인이 직접 신청하면 되며, 사무국에서는 이를 수합해 참석 및 회비납부현황, 파과별·졸업별 안내등을 고려해 회장단회의를 거쳐 최종 선임할 예정이다. <추천양식 3면공과 참조>이번에 선임될 임원은 정기이사의회의 회칙개정에 의거 상무이사 100인내외, 이사 500인내외이며, 임원추천 기한은 오는 4월말까지이다.

## 졸업생 신상파악 마쳐 東國人名錄 등재자료로 활용

본회는 88학년도 졸업생 3천7백여명에 대한 「동문신상카드」를 조사해 한주소 및 직장연락처등의 현황파악을 마쳤다.

이번 졸업생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동문신상카드」현황파악은 금년도에 출간 예정인 「東國人名錄」에 등재될 자료로 사용되며 이 자료가 본회 컴퓨터에 입력되는대로 자료 및 직장을 통해 「東友會報」를 우수하게

된다.

「동문신상카드」를 제출지 못한 동문들은 본회사무국으로 연락을 주어 이번 89년 2월 졸업생 현황파악에 적극 협조해 주길 바란다.

## 本報학생기자에 장학금수여

본회는 지난30일 「東友會報」 학생기자로 활동중인 白眞石(국문4년) 林忠範(농경4년) 군등에게 89년도 1학기 장학금 각60만원씩을 수여했다.

## 行院 졸업생환송회 45期신입생 환영회도

행정대학원 1988학년도 졸업생 환송회 및 45기 신입생환영회가 지난달25일 모교 동국관 5층로비에서 열렸다.

朴昌勳회장을 비롯한 역대원장과 鄭用吉학감, 朴蓮浩 現대원부회장, 朴春吉학석회장과 졸업생 및 동문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날 행사에서 행정대학원 동문회 尹錫均회장은 축사를 통해 『지성인으로서 심도깊은 학문탐구로 선배들이 이룩한 전통을 더욱 승화시켜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동문회에서는 신입생과 졸업생에게 가방과 바나나를 기념품으로 증정했다.

## 政外科 동창회 지난29일 회장단회의

政外科同窓會(회장 朴樹柱)는 지난29일 同會 사무실에서 朴樹柱회장, 韓相根부회장등 회장단이 참석한 가운데 회장단회의를 갖고 정기총회 개최 및 정외과 동부수련 제1회 반간등에 대해 협의했다.

## 경영과·FODE 동창회 모교재학생에 장학금전달

경영학과동창회(회장 白正基)와 FODE동창회(회장 차정희)는 신학기를 맞아 새학생 후배들에게 장학금을 전달하고 이들의 면학정진을 격려했다.

경영학과동창회는 지난 27일 모교 경상대학실에서 백정기회장과 장진원 사무국장, 조희영교수등이 참석한 가운데 장학금전달식을 갖고 김덕선(경영4) 한홍식(//4) 김선근(//3) 군등 3명에게 기성회비에 상당하는 각20만원의 장학금을 수여했다.

同會는 지난87년부터 매학기 2명씩을 선발해 장학금을 전달해왔다.

경제학과 출신모임인 FODE동창회는 지난18일 경상대학실에서 자장희회장이 참석해 장학금 전달식을 갖고 유덕화(경제4) 유두(//3) 군등 2명에게 각30만원의 장학금을 수여했다.

同會는 지난 87년부터 매학기 2명씩을 선발해 장학금을 전달해왔다.

## 70주 기념장학회 재학생 8명에 장학금지급

동국70주년기념 장학회(이사장 李智冠)는 89년도 1학기 장학금 수여자 8명을 선정해 각50만원의 70주장학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각 단과대학별로 순환 지급되고 있는 동창학회의 이번수혜자는 임기법(법학4) 김봉식(영정3) 이윤진(지교4) 김종욱(미술4) 권미경(이부산공4) 하혜남(정보관리3)이남희(경주영문4) 군등 7명이며 경주캠퍼스 장학생 1명이 추가선발되는대로 장학금수여식을 갖게 된다.

동국70주년장학금은 모교 개교70주년을 맞아 동문들의 성원을 모아 1977년에 조성한 장학금으로 지난 77년도부터 성직우수자들을 선발해 수여해오고 있다.

## 東國文學人會 정기총회 제3회 동국문학상 시상식도

東國文學人會(회장 李炯基·모교교수)는 지난7일 오후7시 출판문화회관 대강당에서 150여동문들이 참석한 가운데 89년 총회를 겸한 제3회 동국문학상 시상식을 가졌다.

동문 문인들로 결성된 同會는 모교의 창작활동 지원을 비롯해 상호 문화활동의 협조를

을 위해 노력해왔으며, 한해동안 뛰어난 작품활동을 보여 동국문학을 빛낸 동문을 선정, 동국문학상을 시상해오고 있다.

이날 시상된 제3회 동국문학상은 대하소설 「태백산맥」을 집필중인 소설가 趙廷來(66국문) 동문이 수상의 영광을 안았다.

## 본회와 모교발전에 參與해주실 同門을 推薦해주십시오

본회에서는 제51차 定期理事會(89.3.16)의 의결에 따라 總同窓會 제15대理事를 접수합니다. 각급支部·支會, 직장별 東友會에서 本會와 母校發展에 헌신적으로 참여 해주신 신망있는 주위 同門들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추천·접수기간  
1989년 4월30일까지
- 추천내용  
①성명 ②졸업년도·학과 ③약력 ④한주소 ⑤직장 및 직위 ⑥추천인 성명
- 접수처  
110-300 서울시 종로구 관훈동 192-18 성화빌딩 12층 동국대학교 총동창회 사무국  
※기타 자세한 문의는 본회 사무국으로 연락바랍니다.  
(전화: 733-3991~3)

東國大學校總同窓會會長 鄭在哲

충동항회

제15대理事추천접수

公 告

15代 동창회의 進路와 役割

東友斷想

지난6월에 열린 本會 51차 정기이사회는 많은 임원同門들이 참석해 오랜만에 성황을 이루었다. 또 그 열기에 못지않게 이번 理事會는 동창회의 進路와 役割에 중요한 전기를 마련했다.

이 가운데서 그간 동창회가 담보리 상태에 머물러 있던 「自立運營체제」와 관련하여 신입회장을 비롯한 임원진들의 확고한 결의는 매우 고무적인 자리배김이라고 생각한다.

돌이켜보면, 총동창회의 운영은 本會 임원진을 주축으로 오늘날까지 각종 사업이나 기금조성등을 통해 同門社會와 母校發展에 기여해온바 있다. 그리고 그 업적은 결코 과소평가될수 없는 뜨거운 모교애의 열정이라고 본다.

이제 동창회의 운영이 재학생들의 동창회비에 의 존하지 않고 독자적인 운영체제로 진입하게 된것은 다행은 감이 있지만 동창회발전을 위해서는 바

했다. 구체적인 사업계획은 수립될 수 없지만 대대적인 장학기금 모금이나 기념관 설립등에 동문들의 힘이 모아져야 할 것이다. 또 이를 위해서는 개교83주년을 맞는 금년부터 모교측과 협의하여 장기적인 대책을 마련, 추진해야 할 것이다.

민족사학으로 성장해온 東國의 역사 1백년은 비로 東國人에 의해서 그 의의와 가치가 설정된다. 동문들의 애국적 충가는 물론 중국이 배출한 동문들의 사회적역량은 중국

의 오늘을 가능하는 척도가 될 것이다. 또, 사회각계에 존재해 있는 여러 동문들이 모교애로 굳게 뭉쳐 동국 1백주년을 향해 함께 걸어 가야 할 중요한 시점에 우리 모두가 위치해 있다 하겠다.

이에 총동창회를 이끌어 가는 신입15대任員陣의 책무는 막중한 것이며, 사회활동하고 있는 8萬 동문들의 성원 또한 매우 절실한 지원이다. 동국사람의 정신을 가진 동문 한사람 한사람의 정성과 성원이 밑받침되어 새로운 계기를 마련한 총동창회의 신도와 역할수행에 커다란 추진력이 되어 주길 기대한다. 아울러 동국중흥을 위해 힘쓰고 있는 모교의 발전에도 단단한 디딤돌을 놓아주소

시기를 바란다. 새롭게 출범하는 제15대 임원진에 거는 기대가 크만큼 동문과 총동창회 집행부가 힘써야 하는 짐은 무겁다. 그러나 다가올 동국 1세기의 역사가 제대로 평가받고 사회적 추앙을 받을때, 우리 東國인 모두의 가슴에 새겨질 영광과 명예는 값진 보람으로 기록될 것이다.

다시 한번 15대 임원진의 입찬 출범을 축하하며, 동국발전을 위한 여러 사업들이 초기의 성과를 기대할수 있기를 기원한다.

自立運營체제의 進路와 役割에 對한 東國인 1백주년 기념사업의 主要課題

經營大學院 정기총회 개최

제 9 대會長에 李起彬 동문 선출

예결산안 승인...축하패 수여등 친목다져

경영대학원동창회(회장=曹晳·의교양행대표)는 지난 28일 오후 7시 여의도63빌딩 3층제리움에서 200여동문들이 참석한 가운데 정기총회를 갖고 2년 임기의 제9대 회장에 李起彬(79경원·국회의장)을 '선임했다.

총회 이후재 사무국장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정기총회에서는 신인갑사에 鄭光時(82경원·국제검정공사 차장) 羅得煥(83경원·국제폴산(주)대표이사) 동문등을 선출했으며, 부회장 및 이사 선임은 관례에 따라 신임 李起彬 회장에 일괄 위임하기로 했다.

이날 定議에서는 또 최근취 임한 모교 경영대학원 尹鍾安 원장과 金相鍾 학장들에게 축하패를 수여했다.

지난 7·8대의 曹晳 회장이 이어 경영대학원동창회를 이끌어 가게 된 李起彬 회장은 民主黨 李承晚 元帥의 孫자로 現재 國會議원 尹鍾安 元帥의 孫자로 1989년 5월 31일 國會議원 선거에서 당선되어 1990년 5월 1일부터 2년 임기로 재직하게 된다. 李起彬 회장은 "새로운 출발점에서 자력으로 동창회의 활성화와 모교발전을 위해 노력해나갈 것"이라고 밝히고 "보다 많은 동문여러분의 성원과 협조를 부탁한다"고 취임소감을 밝혔다.

한편 同會는 이날 정기총회

에서 88년도 결산감사 보고 및 89년도 예산안 승인등의 절차를 마치고 제9대 임원진들의 출범속에 會發展의 새계기를 마련했으며, 총회후 연회를 열어 동문 상호간 친목을 다졌다.



27期 任官기념회 열어

ROTC 총동문회서

ROTC 총동문회(회장=元容璇·남양전기(株)대표이사)는 지난 3일 오후 2시 모교동국관 5층로비에서 1989년 ROTC 제27기 임관기념파티를 열고 금년에 임관한 후배들을 격려했다. 모교 李冠冠 총장을 비롯해 회장단인 元容璇 회장 및 동회 회장단이 참석한 이날 기념축회에는 서울형 경주캠퍼스 인관생 93명이 자리를 함께 했다.

ROTC 4期會 창립

60여 同門들로 조직된 ROTC 4기 同會가 지난 24일 오후 7시 잠실 교보타워 12층 파노라마에서 창립총회를 갖고 정식 발족했다. 31명이 참석한 이날 창립모임에서는 초대회장에 成百幸(66경원·대지주산(株)전부이사·사진) 동문, 부회장에 조홍(69경원) 박찬현(경계) 김경기(복교)오대영(복교) 양근하(복교) 동문, 총무에 임상순(66경원) 동문등을 각각 선출했다. 同會는 앞으로 분기별 모임을 통해 친목을 도모하며 총 128명에 달하는 전제동문생들을 적극 유망해나갈 계획이 있다. 연락처 : 413-2421~3(3석배행 회장)

本會來訪

▲구본일(60법학·감사원감사과) ▲박연사(79경원·(주)백아산업대표·본회이사) ▲김복철(62정치·평화기업(주)대표이사·본회이사) ▲최정영(총학생회총무부장) ▲박용구(53사화·순천시민양육대표·본회이사) ▲바수전(77형정·새한종합금융(주)부사

신탁장·본회이사) ▲김변운(모교기획조정실장) ▲서병준(61법학) ▲황인연(60경계·(주)한샘서비스 용산전시장매점대표) ▲박래춘(48문과·전부회이사) ▲김은하(62정치·前국회의장·본회교무) ▲강진수(경주법퍼스트졸업준비위원장) ▲서성래(63생물·삼와선사 대표·본회이사) ▲백낙도(57법교·前본회이사) ▲김판선(87체교·서울원림피규에달리스트)

신탁장·본회이사) ▲김변운(모교기획조정실장) ▲서병준(61법학) ▲황인연(60경계·(주)한샘서비스 용산전시장매점대표) ▲박래춘(48문과·전부회이사) ▲김은하(62정치·前국회의장·본회교무) ▲강진수(경주법퍼스트졸업준비위원장) ▲서성래(63생물·삼와선사 대표·본회이사) ▲백낙도(57법교·前본회이사) ▲김판선(87체교·서울원림피규에달리스트)

Advertisement for '미원회' (Miwon Hui) featuring the slogan "보이지 않는 미원의 손길" (The invisible hand of Miwon). The ad lists various programs including a scholarship for the first female student, a 200 million won grant for the first female student, and a grant for the first female student. It also mentions a grant for the first female student and a grant for the first female student. The ad is set against a background of a hand holding a pen.

# 동국1百周年향한 힘찬출발

## 제51차 정기이사회 詳報

「제51차 정기이사회」가 지난16일 오후 7시 플라자호텔에서 鄭在哲회장, 金東夏고문, 文泰植수석부회장등 본회회장단, 상무이사, 이사회 1백60여명이 참석하군데 열렸다.

申益炫사무국장의 사회로 국민의례, 경과보고, 감사보고, 임원선출, 예산안승인의순으로 진행된 이날 이사회에는 회의에 참석치 못한 임원 1백20명이 사전에 본회사무국으로 참석취임 통보를 해왔다.

장일치로 의결했다.

또한 부회장선출은 신입회장에 위임하기로 의결했으며 감사상무이사·이사의 선출방안은 의결했는데 감사는 현행대로 3인을, 상무이사는 1백인내의,

파견이사의 선출방안이 거론돼 앞으로는 전체동문의 의사를수렴해 추천키로 했다.

### 이사지원등 會則개정

이밖에 기타 의견으로 釋太田(63영문) 이사가 「신인 집행부는 여성동문에도 많은 관심을 갖어줄것」을 權錫忠(70정

할것」을 새집행부에 촉구했다.

한편 柳岡麟 본회부회장은 동창회가 학내문제에 적극 개입해야한다는 주장에 대해 「지난해 학내분규때 회장단과 함께 수차례 모교를 방문한바 있었다」며 다교의 경우 경험한 개입으로 분규에 휘말린 예가 많음을 지적한뒤 「앞으로는 전체동문의 의견을 존중하면서

겨주신것은 더욱 열심히 입학라는 뜻으로 알고 모교와 동창회의 발전을위해 최대한의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한뒤 이날 행사에 참석한 金東夏고문과 權錫甲 黃明秀 權炯佑 張忠準 辛敏善동문등을 인일이 소개하고 감사의뜻을 표했다.

### 동국발전방안 협의

한편 金東夏고문도 인사말을 통해 「그동안 鄭在哲회장을 비롯한 회장단의 노고로 동창회가 경이로운 발전을 이룩했다」고 치하한뒤 이날 이사회에 참석한 동문들의 건승을 기원했다.

이날 참석한 동문들은 회의 순서를 모두 마친뒤 저녁식사를 들며 앞으로의 동창회운영

## 自立運營과 모교 후원사업에 주력키로 상무이사 1 백인·이사 5 백인 内外로증원

이사는 5백내외의 증원하고 선출은 신입회장단에 위임키로 결정했다.

이어 89년도 사업계획및 예산안을 통과시키고 기타사항을 논의했는데 모교재단에 동창회

차) 상무이사는 「모교 학내문제에 동창회가 보다 적극적으로 개입할것」을 李濼雨(85교원) 이사는 「앞으로 문화예술계 동문에 대한 지원을 늘려 정신문명발전에 동국이 기여하도록

모교발전에도 신중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鄭在哲회장은 신입인사를 통해 「다시 여러조직을 맡

반과 동국발전에 대한 이 야기를 나누는라 늦은 시간까지 지리에 얽아 웃음꽃을 피우기도 했다.

### 88·89會計年度 에·결산수지표

|        | 88예산액       | 결산액         | 89예산액       |
|--------|-------------|-------------|-------------|
| 총수입    | 387,839     | 387,839     | 412,989     |
| 이월회비   | 80,000,000  | 58,785,500  | 9           |
| 특별회비   | 15,000,000  | 7,533,315   | 20,000,000  |
| 이사회비   | 15,000,000  | 11,250,000  | 20,000,000  |
| 상무이사회비 | 10,000,000  | 6,600,000   | 10,000,000  |
| 회장단분담금 | 0           | 5,000,000   | 10,000,000  |
| 평고료    | 10,000,000  | 5,500,000   | 10,000,000  |
| 수입이자   | 1,000,000   | 1,172,967   | 39,000,000  |
| 기타     | 612,161     | 6,686,288   | 537,011     |
| 합      | 132,000,000 | 102,915,909 | 110,000,000 |

|         | 88예산액       | 결산액         | 89예산액       |
|---------|-------------|-------------|-------------|
| 총지출     | 2,400,000   | 942,975     | 1,000,000   |
| 행사비     | 5,000,000   | 3,908,865   | 3,000,000   |
| 주최간담회비  | 10,000,000  | 4,022,100   | 3,000,000   |
| 경조비     | 7,000,000   | 6,876,250   | 7,000,000   |
| 회보간담회비  | 35,000,000  | 29,025,99   | 23,000,000  |
| 장학금     | 4,000,000   | 3,800,000   | 4,000,000   |
| 재정운영보조비 | 10,000,000  | 10,146,000  | 5,000,000   |
| 중장비     | 21,240,000  | 20,340,000  | 20,000,000  |
| 산내비     | 8,650,000   | 8,050,000   | 8,000,000   |
| 학내활동비   | 2,400,000   | 2,400,000   | 2,400,000   |
| 회비      | 5,000,000   | 3,562,540   | 3,000,000   |
| 총지출     | 15,000,000  | 724,380     | 1,000,000   |
| 인회비     | 3,000,000   | 1,129,450   | 1,000,000   |
| 비품구입비   | 1,000,000   | 305,000     |             |
| 비품신비    | 3,000,000   | 3,031,790   | 3,000,000   |
| 사무비     | 300,000     | 352,100     |             |
| 사무수납비   | 1,000,000   | 638,123     | 1,600,000   |
| 기타수납비   | 300,000     | 88,800      |             |
| 기타수납비   | 5,000,000   | 225,000     | 2,000,000   |
| 예비비     | 5,613,600   | 1,420,317   | 4,000,000   |
| 이월회비    | 896,400     | 896,400     |             |
| 이월회비    | 0           | 585,840     |             |
| 이월회비    | 0           | 412,369     |             |
| 합       | 132,000,000 | 102,915,909 | 110,000,000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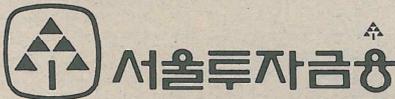
▶ 지난16일 金東夏 임시의장의 사회로 열린 제51차 정기 이사회에서 1백주년을 바라보는 모교의 발전방안과 동창회의 지원운영 계획이 논의됐다.



### 160여명참석 성황

이어 金東夏부회장을 임시의장으로 선출하고 안건토의에 들어가 경과보고와 결산보고를 갖고 88회계년도결산안(별표참조)을 통과시킨뒤 임원선출에 들어갔다.

임원선출에서는 朴龍龜(53사학) 金完式(71농학)이사가 鄭在哲회장을 신입회장으로 추천했는데 이에대한 이의가 제기되지않아 鄭회장의 유임을 만



“항상 성실하고 정직한 소나무정신으로 신뢰받는 늘 푸른 금융회사입니다”



주소: 서울시 중구 을지로2가 198 서울투자금융빌딩  
전화: 대표 771-09

# 모교副總長에 金炯秀 동문

## 경주교수회서 선출...교직원 인사도



모교는 최근 金炯秀 부총장을 비롯한 경주캠퍼스 학처장인사사와 주요기관의 교직원 인사를 각각 발표했다.

<교수보직인사>

▲金炯秀(58국문·인문대 국문과·사진) 동문의 부총장취임식이 지난 9일 오전 11시 소강당 II에서 교직원 배역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金炯秀는 81년 모교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한 뒤 모교 경주캠퍼스 국문과교수로 부임, 학생부장, 문리과대학장을 역임했으며 지난 달 24·5일간 교수회의 발표에서 부총장후보로 선출돼 지난 6일 임명됐다.

▲權度燮(법정대 법학과·사진) 교수=경주캠퍼스교무처장  
▲金喜年(64정치·기초과정·사진) 교수=경주 학생부장  
▲安昌範(한대의 한의학과) 교수=부속 한방병원장  
▲吳岫世(71국문·인문대 국문과) 교수=동대신문 부주간  
▲吳英珍(인문대 일본과) 교

수=경주캠퍼스 기술사감  
▲朴相範(78경영·상경대 경영학과) 교수=경주캠퍼스 교육방송국 주간  
▲龍結元(62영문·문과대 영문과) 교수=서울캠퍼스학술부장  
▲金泰俊(61 국문) 교수=문과대 일본어에서 국문과로 소속을 변경.

<교직원 인사>

▲朴東琪(62법교) =교육방송국장  
▲朴在憲(61경제) =체육부장  
▲成芝敏(77경영) =총무과장  
▲朴祥鎰(68법학) =관재과장  
▲孫相吉(76법교) =학생과장  
▲오복웅=장학과장  
▲宋富子(65사학) =교무처과장  
▲車璇九(69인학) =경주 교무처 학적과장  
▲李哲敏(69법교) =중앙도서관 사서과장서리  
▲유종기=경주도서관 사서과장

# 경찰계 동문 인사 이동

최근 지방분부에서 울시경인사에서 경찰계의 많은 동문들이 자리를 옮겼다.

▲南澤壽(57법학·총경) =노량진대공과장에서 화성경찰서장으로

▲趙文華(60법학·총경·사진) =치안본부대공수사 5과장에서 치안본부대공수사 3과장으로  
▲具敦賢(64법학·총경·사진) =대구시경 경무과장에서 대구시경 경비과장으로  
▲金榮浩(70경영·총경) =충북도경 보안과장에서 인천시경 보안과장으로  
▲金板根(70경영·총경) =부산진서 경비과장에서 제주도경 수사과장으로  
▲宋學濤(73형사·총경) =서울시경 중보과장으로  
▲姜信德(64정치·경정) =종로서 수사과장에서 서울시경간력계장으로  
▲金明洙(70형원·경정) =경



주서 수사과장으로  
▲崔廣賢(71경형·경정) =경찰대학 지도실장에서 서울시경경보 3계장으로  
▲鄭善燮(66인학·경감) =남부서 정보 2계장에서 강동경찰서로  
▲元鍾浩(69경형·경감) =서울시경 경무과에서 기동대 33중대장으로  
<경정승진후보>  
▲田德善(63법학) =치본 형사과  
▲趙龍衍(79경형) =안양서 경비과장  
▲朴鍾國(81경형) =공주서 경비계장

# 研究書「석굴암」발간

원로미술학자인黃壽永(문화계위원)前총장은 최근 석굴암의 참견과 구조 신라불교 등을 쉽게 풀

# 보사부 병원행정과장 金之煥 동문

金之煥(60법학) 동문은 지난 23일 보사부인사에서 병원행정과장으로 전보됐다. 金炯秀는 약무시흥국 마약과장등을 역임한 보사부내 실무의 베테랑이다.

# 조폐공사 이사장에 李範俊 동문

李範俊(77형원·본회 상무이사) 동문은 최근 한국조폐공사 이사장에선 임했다.

교복부 장관을 역임한 李炯秀는 육군 군수사령관, 해운항만청장, 국회 농수산위원장을 역임했으며 현재 민정당 국제재무위원회 외교·안보분과위원장으로도 활약중이다.

# 수필문학대상 수상 車柱環 동문

車柱環(44호아·수필가·前서울대 문리대교수) 동문은 최근 한국수필문학회 주최 제 5회



현대수필문학대상 수상자로 선정됐다.

# 상화시인상 수상 金長好 동문

金長好(48문학·시인·모교 국교과교수·필명: 韋湖) 동문은 죽순시인구락부에서 시상하는 제 4회 상화시인상의 수상자로 선정되어 지난 11일 대구 뉴영남호텔에서 시상식을 가졌다.

한편 金炯秀는 한국시인협회에서 주는 「제 2회 시협상」 수상자로도 선정되어 지난 18일 프레스센터에서 시상식을 가진바 있다.

# 한국財政學會 회장에 張源宗 동문

張源宗(52경제·모교교수) 동문은 최근 대한상공 회의소에서 열린 한국財政學會 정기총회에서 새 회장에 선임됐다.

張源宗은 모교에서 후진양성에 힘쓰면서 활발한 학·藝術 활동을 보여 성실한 학자라는 평을 듣고 있기도 하다.

# 시인대회 사무총장에 李炯基 동문

李炯基(56법교시인·東國문화인회장·모교국문과 교수) 동문은 서울 세계시인대회 집행위원회의 사무총장에 선임됐다.

「시를 통한 세계의 연애와 평화」를 주제로 국내외 1천 2백여명의 시인이 참가하는 제 12차 세계시인회의는 오는 90

# 新藥연구조합 理事長 李宗鎰 동문

李宗鎰(58법학·본회 지도위원·중의제약 회장) 동문은 최근 한국新藥개발연구조합총회에

서 이사장에 선임됐다. 李炯秀는 대한중의제약(주) 대표이사를 역임했으며 현재 (주) 중의제약, (주) 중의상사(주) 중의기계의 회장으로 있으며 前本會부회장과 회장으로서

도위원으로 모교와 본회 발전에도 깊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 MBC 세동문 영진 柳惠子 동문 등

柳惠子(64국문·본회이사장진), 柳興烈(65연영), 洪淳昌(60연영) 등 MBC의세 동문이 지난 12

일 인사에서 각각 영진, 전보됐다.

柳惠子 동문은 라디오제작 제작 1부 정보센터담당 부장대우로, 柳興烈 동문은 TV 제작국 제작위원에서 부국장으로, 洪淳昌 동문은 미술영상국 미술 1부장으로 각각 영진했다.

# 商銀 신직지정장 金正友 동문

金正友(64경제) 동문이 최근 商業銀行인사에서 신직점 지정장으로 자리를 옮겼다.

# 철탑산업훈장 받아 李和一 동문

李和一(65사학·본회 상무이사) 동문은 지난 3일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제 23회 초세의날 기념식

에서 우수법인으로 선정돼 철탑산업훈장을 받았다. 李炯秀는 현재 朝鮮耐火工業(주)의 대표이사로 활동중이며, 지난 47년에 설립된 동사는 국내 50여개 내화업종에서 유일하게 기업을 공개한 우량기업이다.

# 동화은행 부장으로 張誠一 동문

張誠一(69사학·본회이사) 동문은 최근 한일은행 예삼동 지점에서 새로 창립된 동화은행 부장으로 자리를 옮겼다.

張源宗은 은행가에서 근무해오며 실무와 이론을 겸한 금융전문가라는 평을 들었으며 본회 이사로 본회 발전에도 적극 활약중이다.

# 담배공사 홍보실장에 趙源和 동문

趙源和(69형원) 동문은 최근 한국담배인삼공사 안동지사장에서 본사 홍보실장으로 영진했다.

# 외무고시 2차 합격 鄭재남 동문

鄭재남(88법학) 동문은 제 21차 외무고시 2차시험에 합격했다. 지난 25일 충무사에서 발표한 합격자는 총 26명으로 모교에서는 2명이 응시했다.

# 「북경의 어느...」출간 金光永 동문

金光永(66법학·북방정보자교류협회 부회장) 동문은 최근 수필집 「북경의 어느 거리에...」를 상우문화사에서 출간했다. 이 책은 金炯秀의 中國기행수필을 모은 「해운의 자음집」 「정보문화」 등 4부로 되어있다.

최고년 13.05%의 수익률 보장!  
CP는 가장 높은 수익을 보장합니다.  
금액 · 1,000만원 이상 만기 · 90일 이상  
대한투자금융  
DAHAN INVESTMENT & FINANCE CORP.  
서울명동네거리 투자상당 777-4491  
대 대표 771-06

現代不動産仲介業  
全國不動産仲介業協會 代議員  
代表理事 副社長 金炯敏 (75경형)  
대표전화 511-0781 FAX. (02) 547-5742  
서울시 강남구 신사동 616-1 명성빌딩 202호

우문사에서 출간했다.  
이 책은 金炯秀의 中國기행수필을 모은 「해운의 자음집」 「정보문화」 등 4부로 되어있다.

### 서울고등법원 판사에 金東鎮 東문



金東鎮(79년 법·本會이사) 동문은 오는 4월 6일자로 수원지방법원 판사에서 서울고등법원 판사로

영전 부임한다.

본회의사인 동문은 재하시절 19회사법고시(77년)에 합격해 법조계에 입문한 뒤 군법무관과 대구지방법원, 김천법원 판사를 역임했다.

### 유한양행 東友會 인사

지나 1월에 있었던 유한양행 인사에서 車重根 동문도 여성 동문이 승진하고 네 동문이 전보됐다.

#### <승진>

- ▲車重根(68상하)·유한양행 동우회장=관리부 차장으로.
- ▲金正浩(71 경제)=식품사업팀장(차장).
- ▲李榮吉(74 영문)=병원지점과장.
- ▲김인수(83경석)=구매과 과장대리.
- ▲김교필( )=부산시점 지점장대리.
- ▲朴鍾洽(83 경제)=부산시점 주임.

#### <전보>

- ▲張吉錫(66 법학)=채권관리반 과장.
- ▲조용덕( )=도매지점 과장.
- ▲유인만( )=식품사업팀 과장대리.
- ▲윤경실( )=남부지점 소장.

▲申東現(66상하)=서울신탁은행 침계지점 차장에서 총무로 2가지점 차장으로 전보.

▲申正浩(74경정)=중소기업은행 면목동지점 대리에서 노인지점 차장으로 승진. (971) 3811~6

▲金鎮德(80경영·본회의사)=한국장기신용은행 중앙지점 대리에서 차장으로 승진. (779) 3611~7

▲金大成(82통계)=서울증권(주)중앙지점 차장으로 근무. (774) 0053



### 結婚

▲朴永相(79 경인·(株)백악실업 대표이사·본회理事) 동문 =4월 1일 오후 1시반 중로고려예식장서 長女화혼.

### 미래 대중불교운동의 새터「淨土苑」건립

조계종 중앙상임교포사인 宣晉圭(59·불교·본회 부회장) 동문이 30여년 재가불교운동의 결실을 맺는「淨土苑」을 건립한다.

「淨土苑」이 건립되는 경남 김해군 진영읍 봉화산 12만평의 야산은 바로 가락불교의유적지로 宣동문의 교향이기도하다.

宣동문이 이곳 봉화산에「미래대중불교운동」의 터를 잡은 것은 1958년. 처음엔 허름한 주사庵을 중심으로 그 일대 3만 6천평을 매입하고, 그가 모교총리회회장이었던 59년 봉화산정상에 호미를 든 관음상을 세웠다. 그후 여유가 생기는 대로 일야를 넓혀 한때는 18만평을 확보했다. 그러나 식수와 사명대사, 만해선사像 건립, 도로개설등 불사기금을 마련하느라 6만평을 다시 매각하고 현재 12만평중 3만 5천평을 현역화하고 있다.

오는 4월 1일 삼삼식을 가질 대웅전과 본관건립은 급근 내로 마무리된다. 30평 규모에 포집으로 세워질 대웅전은 법

國內최초로 불교회곡집 발간을 위해 동분서주하는 金興雨(64연영·희곡작가·본회의사·모교 연영과교수)동문.

金동문이 佛敎희곡집이 꼭 있어야겠다는 생각을 하게된것은 벌써 오래된 일이고, 그준비도 이미 오래전에 된 상태이다. 삼국시대에 이르러 우리와 관계하면서 民族的의 삼의 토대가 된 불교가 백여년 남짓된 역사의 전주조나 기독교에 비해 문화적으로 불모지라는 것을 발견한 金동문이 예술인으로 필가 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부른다.

현재 채록된 작품은 삼사십 여편으로 가장 오래된 것은 시인 洪恩奇가 1928년 월간「佛敎」에 白두라는 필명으로 게재했던 「원정」. 이차돈의 생애를 극화한 4막짜리 작품이다. 가슴 많은 희곡을 쓴 작가는 金大燾스님으로, 당대의 문필가이며 포교사였던 스님은 素齋, 三錫등의 필명으로 일제하 암흑기의 등불이었던 「불교」誌에서, 수필등과 함께 많은 희곡을 발표했다. 세존의 열반을 극화한 「불멸의 光」목련존자의 효행을 그린 「蓋蘭盆」세존의 입산과정을 내용으로 한 「入山」 등이 경전들 토대도 한 聖典

당과 청소년수련원을 겸하는 지금의 입법당 바로 위에 세워



### 「부처님 일」 지역주민들의 후원이 큰힘돼 95년엔 국내소유의 불교 종합수련원 탄생

진다. 2백25평 규모로 세워지는 본관은 불교지도자및 청소년연수회관으로 사용된다. 3층의 이관에는 식당과 숙실, 강당이 들어서 대점세미나와수련회등을 대자연과 함께 실시할 수 있게 된다.

봉화산을 성역화하는 또, 다른 이유는 부산, 마산, 대구등 대도시와 인접해 있고 김해, 이다.

金동문의 자료에 의하면 불교회곡은 40~50년대에 공백기를 맞게 되는데 이것은 주요 발표지였던「佛敎」의 발행중지에 기인하는 것이다.

이후에 나온 李光來의 청소년극「지옥문을 열라」미당 徐

거창, 밀양군등 4개군 11개읍면을 안고있는 심장부에 있어 지역사회 불교운동을 펼수있다는 포교의 立地조건을 갖추고 있다는 점이다. 또한 봉화산에는 가락불교의 흔적으로 남아있는太子庵터와 지방문화재 40호로 지정된 마애불, 전설의 동굴등이 있다.

宣동문은 2차불사로 태자암과 동굴을 복원하고 인근의모은암, 부은암등과 연관된 가락불교의 역사를 밝힐계획이다. 2차와 3차불사는 91년과95년

에 각각 끝낼계획인데 3차까지의 불사가 끝나면 18m회전 불상봉안, 삼림포장, 수영장, 유



작품은 앞의 두작품을 빼면 모두 전편작가의 것이다. 金동문도「원회대사」「천대장

### 佛敎예술 활성화로 자연스럽게 布敎되야 올 6월 연영과 동문주축 「麻衣太子」공연



廷往의「신달라」하유상의「달·비·피리」「樂報」노경식의「神笛」李萬喜의「저 목탁구멍속에서」車凡錫의「이차돈의 죽음」등 60년대

군「조선의 꿈」등의 불교회곡을 쓴 작가이며 그중「조선의 꿈」은 지난86년 모교 개교80주년 기념공연작품으로 무대에 올려진후 각사찰에서도 공연된 바있다.

金동문은 현재 많이 생각하고 있는 설법회를 긍정적으로 생각하지만, 그공간들을 단순한 법회토단 이용하지 말고 불교인극 또는 불교무용, 불교음악의 공연장소로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이 절실하다고 말한다. 또한 그런 佛敎藝術이 활성화되는 것이야말로 다른 어떤 포교활동보다도 더 큰 효과가

스호스텔, 시청각교육장, 납골당, 야외종합전시장, 운동장등을 갖춘 국내소유의 불교회합수련원 이된다.

「포교가 단순한 교리전달이나 기도에 그칠것이 아니라 요익증생할 수 있을때 그 뜻을 다할 수 있습니다.

宣동문의 지론인이 말처럼 이제 본관이 완공되면 영남지방뿐아니라 서울등 도시지역의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바로 이淨土苑에서 佛敎를 익히고 심신을 단련하게 된다. 불사를 진두지휘하느라 겉게 그을은宣동문은 지역주민들의 든든한후원이 따라부어지는 이일이「부처님일」이라는 생각이 가능한 모든것을 담기위해 더욱바쁘다고한다.

한편 모교재학시절 총학생회장을 맡기도 했던 宣동문의 모교와 본회에 대한 노력 또한 대단하다. 지난 13대회창간부터 상임부회장으로 일해 오면서 본회발전에 일익을 담당해왔다. 한편 모교 講師를 역임했으며 대한불교청년회·10, 11, 15대회장과 이사장을 역임한 宣동문은 30여년을 佛敎界에 봉담으며 지난해 8월에는 대한불교조계종 호법布敎師團장에 취임하는등 布敎와 재가불교운동의 선두주자로 일해왔다.

남것이라고 장담한다.

한편 金동문은 진행중인 첫 불교회곡집의 제1권을 올해안에 펴내고 내년엔 제2, 제3권을 발간해서 1960년대 이전의 희곡들도 제5권까지를 엮을 계획이라고 한다. 작업이 마무리단계에 있어서 한꺼번에 낼 수도 있지만, 마땅한 재원이나 보시기에 없애 자비로 출판해야 하기 때문이다. 현재 관심을 보이는 곳도 있지만, 金동문은 불교계에서 이법일을 佛事로 해서 적극 지원해주길 기대한다.

靑 한국예술인협회의 부회장이며 前모교연영과 동문회장직으로도 일했던 金동문은 佛敎와 모교 또한 예외에대한 의욕이 대단하다. 오는 6월초에는 연영과 정동문이 스텝및 캐스트로 참여하는 유치전의 불교연극마의 태자가 무예회관 대극장에서 올려진다. 마의태자역의 李대화동문등 현역 연기자, 방송연극관계자들이 모여 노교개교83주년 불탄기념및 연영과 창설30주년 기념공연을 하는 것이다.

### 國內최초로 佛敎戲曲集 발간 준비

## 당신의 노후설계, 이제 완성되었습니다.



- “무리하게 가입을 권유하지 않습니다. 꼼꼼히 비교하여 결정하십시오”
- 보험종류 및 보험료 납입기간
    - 직립형: 직립기간 5년이상
    - 거치형: 거치기간 3년이상
  - 보험료 납입액의 환도
    - 직립형: 월보험료 2만원이상 20만원까지
    - 거치형: 일시납보험료 2백만원이상
  - 연금지급제시
    - 직립형: 40세~60세 임의 선택
    - 거치형: 40세~70세 임의 선택

### 노후설계연금보험

- 납입한 보험료에 대해 높은 수익률(장기연금구리 +1.5%)을 보장하여 풍요로운 노후생활을 설계해 드립니다.
- 가입자의 편의에 따라 종신연금형, 확정연금형, 상속연금형등 연금의 형태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습니다.
- 연금제시전에 가입자가 재해사망한 경우에도 보장보험금과 함께 그때까지의 적립금액을 지급해 드립니다.
- \*이 보험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전화 732-9077에서 자동음로 안내해 드립니다.

### 동아생명보험

代表理事 安 澈 奐 (52경계)

1989년 작가 코트코트 여야본  
**남산골回想**

으로 흥드러진 4월 까지도 국문학과 단골출집인 <아름답게>를 진전하며 스스로 병든 탐미주의와 질 나쁜 허부주의에 빠져버렸다. 일종의 '방어기'였으나 사실은 비겁한 허욕이었다. 술이 고프고 여자가 고왔던 나는 마치 주린 들짐승같았다. 신입생들에게 객기를 부린 게 발단이 되어 『강패현』이 된 것도 이때였다.

그러나 손아귀에는 신기하게도 습속노트가 꼭 쥐어 있었

주었다. (볼론, 지기였을 것이나) 그러다가 평론가 증교수를 만나게 된다. 고백하지만 나는 이분으로부터 문하공부와 함께 사물을 분석하는 힘을 배웠다. 서정주·조영현 선생님이나 그 이전의 무애생생 (불행히도 이분은 내가 군에 있을때 타계하셨다)도 계시지만 그런데도 증교수님과과는 엄청난(?) 사건이 있었다.

이 역사적 사실을 토로하면 동문경연에서 제적당할지도 모

안 웃음소리와 함께. 그 즉시로 자군에게 며칠잡혀 끌려온 나는, 놈의 거꾸 앞에 꼴짜할 수가 없었다. 늘신나게 취타진 것은 물론, 하도 메다로 아서 누굴에 이상이 있을 정도였다. 그래도 성이 풀리지않은 자군은 내를 질질 끌었다가 후배의 학숙집에 패대기치더니 밤새워 상처를 치료했다. 술이고 뭐고 이전 하늘이 무너질 판이었다. 교수님은, 그것도 초면의 자리에서 크나큰 추

그때 장학금을 전해주시는 학생처장 ○교수(영문과는 평소에도 『동국문화』의 증용을 꽤나 강조하신 분으로 기억하는데, 나의 등단을 『사법고시 합격 이상의 것』으로 추켜세우던 모습 또한 잊을 수가 없다.

지금쯤 재학생이 등단하면 큰 현수막이 붙는게 많은 의미가 있는것같다. 우리 동국대학은 어디 대학이 감히 따라 오지 못하는 독특한 전통을 갖고있다.

『불교속의 문학』 『미학속의 불교』 저 차원은 이미 무르익었으리라 여기는바, 새삼 동국문학의 전통성과 정통성을 구호로 운운할시기는 지났다고 본다. 시대가 관주를 논의케하고 독재치하를 통국케하고 있으며

**지금도 그리운 목련꽃 향기**

**선배들과의 합평회는 나를 깨우는각성제**

다. 『주사(酒死)』 상태가 되어 또 다음날 깨어보면 앙상한가슴파에 공책은 서늘히 슬피스 은땀에 젖어 있는 거였다. 대학이란 곳은 참모하다. 그러했던 나도 엄연한 대학생이었으니까. 어느 시인이『피 팔아시를 썼다』고 했지만 나는 도저히 그럴 용기도 없고 해서 동료나 후배를 등쳐서 고분배와 험한 가슴을 채우며 살아갔다.

그러는 사이에 많은 선배문인들과의 합평회는 나를 조금씩 흔들기 깨우는 각성제 구실을 했다. 시인 비. 중, 여류시인 이등은 너무나 친절했다. 평소 관심을 두었던 매천, 만해와의 또다른 만남, 노자(老

를 일인데... (그러나 동문여러분, 혹자는 양해해 주시거나 용서해 주시길.)

신록쯤에 나는 소설을 쓰는 절친한 작인 자군의 소개로 허름한 <단골 아줌마집>목로에서 증교수님과 대면했다. 환칠하시교 귀를종 (眞眞眞) 인 그분은 고맙게도 나의 존재를 기억해주셨다.

농주가 몇 순배 돌아 거나 해지고 방자해진 나는 예의 그『촌스런 강패』기질을 속심종고 있다가 괜한 영웅주의에 편승해 그만 돌이킬 수없는 무례를 범하고 말았다. 애초에 술개나 마신다고 품을 쟁게 잘못이었다. 동식한 자군도 알발달한 모양인데도 거의 같은양

태를 부렸으니... 다음날 두어놈이서 아무리 궁리해도 변명할 모래이 없었던담이었다. 교수님은 노크할 때코가 몇자나 속 빠진 것 같할 것도 없었다. 늘같이도 교수님은 전날밤의 웃음을 그대로 리노리시면서 그것과, 강태군. 내가 뒤편...

이 사건으로 해서 나는 본격적으로 시를 공부하게 되었다. 현재 학교교사인 자형, 평론가 ○형과 함께 출판사들하는 자군과 내가 중심이 되어서 처음으로 『동국문학창작교실』이 속리산 법주사에서 있었던데, 돌이켜 보면 참으로 풍성한 시간들이었던 것 같다. 젊으신 교수·동문시인 작가·문



**김 강 태**

▲총남부여출생  
▲71년국문과입학·79년졸업  
▲78년『한국문학』新人賞당선  
▲現덕원여고교사  
▲詩集:『물외의』 『혼자흔들리는그네』 『순은꽃』 등

우리 이웃인 빈민계급 노동자를 진실로 자기가속처럼 돌아보게하고있다.

나부터도 때로는 자각이다. 그러나 쉽게 기층계급을 가까이 하지는 않고 또 쉽게 전유물로, 도구로 착각하고 싶지 않다. 이처럼 우리 『동국문화』도 일의 진취를 따져서 실마릴 풀어야할 과제에 아직 남은것같다. 이지면을 아직 통문 모두가 『東國』의 문학을 마음속깊이 사랑해 주시고 더욱 아껴 주실사하고 부탁드린다.

창밖에 비극적인 우수미가 가득한 백록원이 마땅히 필했다. 목련송이들은 끝이 모두 북쪽으로 쓸려 갔다. 20년 가까이 온 그 시절이 그러다. 목련 밑에서 안주 삼아 짓씌던 목련꽃들이 보고 싶다.

**촌스런 강패기질에 교수님께 무례도**

**1회 문학창작교실을 속리산서 열어**

子)와 바슐라르는 나름대로의 미학에 심취해 했다. 군 입대 전에 사귀었던 오스가 와일드를 원조모르게 이별한 것도 이해가 안간다. 짜식들, 어쨌거나 노자·바슐라르는 알미플 정도도 군집이 들었다.

노동을 짐볼러가며 읽으면 나 자신이 붙어되어 흐르는 듯한 착각에 허둥거렸고, 바슐라르군(君)은 낯선듯 찬찬한 분석주의와 해체법을 은근히 일러

을 마신 교수님은 끄떡 없는 채로 나의 느닷없는 술세례를 받으신 것이다. 미처도 단단히 미쳤지, 술상을 얹은 것이다! (술상도 보름술상인가? 똥나 무조각으로 만든, 좀 무식하게 생긴, 목직함 따지진 것을)

야생 코콜로스처럼 씩씩거리다가 쓰러진 내위풍수로 그분의 낮은 목소리가 다가갔다.

『강태군, 자네 내일 아침이면 분명히 후회 할것세』 차분

침들이 하나가 되어 격이없이 신랄한 비판으로 입관하던 그 시절을, 그 감격을 나는 잊을 수가 없다.

강의실 분위기와는 또다른 창작실기감을 만기했던 것이다. 덕분에 나는 운 좋게도 4학년 때 모 문예지를 통해 등단할 수 있었다. 그리고 여러 교수님들의 배려로 전 학비가 면제되는 『충장정학금』을 받으며 무사히 졸업한 것이다.

**여러가지 은행일이 통장하나로...**

저축예금 + 정기적금 + 정기에금 + 편리한 각종 서어비스!

오뚜종합통장은 3가지 예금(저축예금+정기에금+정기적금)을 통장하나로 거래하실 수 있으며 정기에금이자 및 적금월부금이 자동으로 입금, 지급 처리되고 은행에서 드리는 여러가지 서어비스 혜택을 받으실 수 있으며 편리한 거래신체에 따른 오뚜종합통장 대출도 받으실 수 있어 아주 편리한 종합통장입니다.

**오뚜종합통장의 특징**

- 세가지 예금을 통장하나로 거래
- 오뚜종합통장 마켓
- 밤을 돈과 남도의 자동저리
- 현금저축 지급카드 발급
- 은행 신용카드 발급
- 금전출납부, 기계부 역할

**제일은행**

오뚜모시는 **제일은행**

# 모교財團 활성화방안 모색

## 학생들 수익체제로 전환·전입금확보등 요구

모교재단인 東國學院의 활성화 문제가 최근 크게 부각되고 일부 학생들이 재단이사장실을 점거농성하고 있으나 아직 해결의 기미가 보이지 않음에 대한 우려가 거론되고 있다.

학생들은 모교재단이 지난83년부터 수익사업체로의 전환을 시도하고 있으나 드러나는 실적이 거의 없다고 보고 교수 2인, 학생 2인, 동문 1인, 학부모 1인 등 각계별단체가 참여하는 「재단활성화추진위원회」의 구성을 제안하고 있다.

학생들이 제안, 촉구하고 있는 재단活推委는 재단의 물적 구조를 혁신화하는 구조제로서 재단을 개혁하는 기능을

담당하며 동국의 장기적 발전 대안을 내오는 것으로서 재단 전입금확보, 재단의 수익사업체 제로의 전환, 불합리한정관수정 등을 요구하고있다.

그동안 재단내에서도 재단의 활성화를 위한 논의가 계속되어 왔는데, 지난83년 1천2백36억원이라는 재단재산을 처음으로 공개하면서 수익사업체 운영방향을 설정해 화제사의 사실공민화와 동국유지관등을 구상했으나 실현되지는 않았다.

지난 88년말현재 재단재산의 현황은 토지 9백35만여평에연금 3억여원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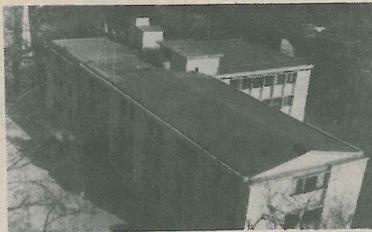
최근 재단의 활성화문제에거듭 증가되고 있는것은 새학기등

특금이 동결되면서 학교당국이 장학수혜와 교육투자의 축소가 불가피함을 밝히자 학생들이연재 5%미만인 재단의 전입금을 확충하여 교육의 질적향상을 이룰것을 주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재단재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있는 토지를 단순매각하는 것보다는 장기적인 안목에서 부동산의 선화회를 이루고 수익기능은 사업전개로 운영의 합리화를 통한 재정지출의 확대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지적이다.

현재 재단이 활성화해야 한다는데는 재단이나 학생모두가 뜻을 같이하지만 재단측은 자칫하면 재단활추위가 기존 재단사회를 유명무실화할까 우려하고있다.

학생들의 재단활성화 주장은 나름대로 타당성을 지니고 있으나 우선 현재재단이사회가 전체동국인의 의사를 수렴하고 효율적이며 합리적인 사업운영을 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하겠다.



◇東國別館신속 설문조사 모교 기획조정실에서 동문 교수·학생들 1백66명에게 해 지난87년 인수한 구재향군인회관부지의 활용방안에대한 설문조사결과 명칭은 「만해관」, 용도는 대극장과 도서관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가장 많이 나왔다. (사진은진건물모습)

### 졸업생취업률 75%

경주캠퍼스는 53·8%로저조

모교 서울캠퍼스 88학년도 졸업생취업률이 작년도의 71.2%보다 4.1%증가된 75.3%로 집계됐다.

학생취업계에 따르면 2월말까지 전체졸업자 2천3백12명 중 1천7백40명이 취업하였고 이중 대학원진학(1백19명)과 군인대자(1백46명)를 제외한 순수취업은 63.8%인 1천4백75명으로 작년보다 2%증가했다.

한편, 경주캠퍼스도는 지난해보다 0.5%증가한 53.8%로 여전히 저조한것으로 나타났다.



### 89학년도 등록금동결

89학년도 제1학기 등록금이 전년 동결됐다.

이번 등록금 동결은 지난 9일 학교측과 학생들간의 합의가 이루어짐에 따라 결정된것으로 신입생등록금 인상분10%도 환불하되 환불금액이 등록발전에 쓰이도록 결정됐다.

### 신임교원23명 인사발령

모교당국은 지난 1일자부로 과대원훈과대우조교수에 趙儀衍(81명분)등문을 임용하는등 신입부교수·조교수·전임강사 및 대우조교수·대우전임강사 등23명(서울 7명·경주16명)에 대한 인사발령을 했다.

### 복싱2체급 석권

복싱부소속 유창현(경형 4) 조인주(체고 2)군이 「제14회 아시아선수권대회」 2차선발대회」 라이트미들급과 밴텀급에서 각각 우승을 차지했다.

### 경찰간부시험 16명합격

「제38기 경찰간부후보생모집시험」에 박지배(85경형)고 기철(경형 4)군등 동문과 재학생 16명이 합격했다.

### 출판부「경주10년사」 발간

경주캠퍼스 설립10주년기념사업의 일환으로「경주캠퍼스 10년사」가 지난해 12월31일 일자로 출판부에서 발간됐다.



## “92년 동계올림픽에서도 금메달 유력”



동계 U대회 3관왕  
李準鎬 동문

메달을 따낸바있는李동문은 국내빙상사의 간판스타로 그동안 꾸준한 상승세를 보여 이번대회에서도 메달획득이 유력시 되어왔다.

리타국교 1학년때 스피드 스케이팅으로 빙상과 인연을 맺은李동문은 서울고 재학 시절부터 국내 1, 2위를 다투어온 유명주부 80년 주니어대표로 사라에보 세계주니어 선수권대회에 출전할만큼 스피드 스케이팅에서도 두각을 보여왔다.

그때 84년 국내에 소프트 레크 스피드스케이팅이 보급되자 자신의 적성에 적합해 오늘에 이르렀다.

사업서사인 이기문씨(53)와 후원회석(52)의 2남1녀중 막내로 모교 경영대학원에 재학중인李동문은 3천m 한국최고기록 비공인 세계최고기록(5분03초10)을 갖고있어 92년 동계올림픽에서도 확실한 메달리스트로 기대되고 있다.

## 총학생회장에 김성규군 당선 총 여학생회장에는 이정옥양



제21대 총학생회 김성규군(사학 4·사진)윤영현(독문 4)군이 당선

제21대 총학생회 김성규군(사학 4·사진)윤영현(독문 4)군이 당선됐다.

지난 28·29일 양일간 실시된 선거결과 총유권자 9천5백28명중 6천5백68명(투표율 68·9%)이 투표해 기호1번 이기재(도목 4)·이용순(영의 4) 조가 2천1백92표, 기호2번 김성규·윤영현조가 3천1백71표, 기호3번 채병기(행정 4) 이원희(야간 경영 4) 조가 1천63표를 득표해 김성규·윤영현군이 정·부회장에 당선됐다.

현군은 「20대총학생회에서 일정정도 이룩한 단결의기운을보다 질 높음대로 승화시키고자 후 안전된 학생회체계를 구축하고자 출마했다」고 출마의의를 밝힌바있는데 그동안 유세를 통해 조국통일투쟁전개와 학원자주화 투쟁의 완수를 공약했다.

한편 제5대 총여학생회 정·부회장에는「정복의 역사를던고 일어서라, 목명의달이어」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단독후보였던 이종욱(국문 4)·김인숙(수교 4)조가 당선됐다.

총학생회장선거와 병행해서 실시된 총여학생회장선거에서는총유권자 2천4백51명중 1천6백55명(투표율67.6%)이 투표했는데 이중 90.6%가 이종욱·김인숙조에 찬성투표했다.

### 체신부 通信工事면허업체

### 世宇電子通信公社

TEL: 273-4048 (代)

- 각종 通信設備 유지 보수
- 각종 通信機器 제작 및 설치
- 전자식 자동교환기 및 키-폰
- FAX·TELEX, 인터폰, MDF설치
- 컴퓨터대인 SOFTWARE 운영

대표 趙椿煥 (74경영)

중구 을지로4가 315-1 무광BD 510호

### 桃園꽃집

화환·꽃바구니  
생화·신부화  
화분·등·서화란

TEL : 266-4571  
야간 : 602-4806

대표 辛承水 (72 경영)

서울 중구 충무로 4가125-1 진영빌딩 3층 42호

## 회비... 1년에 1만원

### 회보제작·장학기금미련·사무국운영에 긴요

주체적인 참여의식을 갖읍시다.  
성원에 감사드립니다. 同門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뜨거운 격려속에 總同窓會는 사무진상화를 통한 동문 조직강화와 모교발전 지원사업을 계속 전개해 나가고 있습니다.  
同門여러분 스스로가 總同窓會의 주인이라는 주체의식을 갖고 自律運營의 기능을 마련해 나가기 위한 會費납부에 적극적인 협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회비내역

- 一般會費... 1만원
- 理事會費... 5만원
- 常務會費... 20만원
- 단체회비... 회원수대로
- 해외동문회비... 총 20
- 監事... 20만원
- 指導委員... 20만원
- 會費... 100만원

### 납부안내

- ① 은행지포인용 (7500891)
- ② 전화주시면 방문수납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본회사사무국(733-3991~3)으로 문의바랍니다.

東國大學校總同窓會 事務局

# 文武겸비한 국가의 干城돼야

## R.O.T.C. 임관후배들에게 주는 글

친애하는 東國大學校 ROTC 27기 임관장교 여러분!  
오늘 영예의 임관을 하게된 여러분은 지난 4개 星期 각고의 노력으로 오늘의 영광을 차지한 인생의 승자들이 임

도 여러분에게 지혜를 주신 여러 교수님, 敎官 여러분, 그리고 묵은일 마흔일 가지지 않고 헌신적인 헌바라지 해주신 學父母님, 親知, 家族 여러분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또한 27期 任官者 여러분은 이분들의 사랑과 指導하여 주신 恩惠를 잊지 말고 生活자길 담 부합니다.

ROTC야탈로 학교, 군사교육단, 가정이 3위1체가 되어 뒷받침해 주지 않으면 그 어려운 文武兼備의 길을 걸을 수 없는 것입니다. 돌이켜 보면 여러분은 결코 변란하고

로서의 역할을 해왔습니다. 임관장교 여러분!



ROTC임 관축하연에서 李智冠모교총장과 元容璇회장이 사대인을 터뜨리는 장면.

개에 있는 계급장에 대한 기도가 더욱더 크다는 것을 다시 한번 성찰하여 국가의 단결을 수행할 때까지 당부하고자 합니다.

바란는 장교가 되어 단련하여 동국인의 기상을 심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여러분은 이제부터는 여러분의 육신이 개인것이 아닌 국가의 것입니다. 이따시 그 무를 하든지 국가와 민족을 보위하는 육군 장교단의 일원이라는 것을 견지하여 주길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상사의 의도를 명백하여 진취적인 자세로 근무에 임하여 솔선수범을 실행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셋째로, 여러분은 많은 젊은이를 통솔하는 父母의 役割을 수행해 달라는 것입니다. 군요를 사랑하기를 어머니같이 하고, 교육훈련시는 아버지 같이 하고, 경소에 세심한 관리력을 함양하여 小隊長을 親屬과 같이 다정다감하게 감싸주어 우리 東國人 小隊長은 세계 제1의 小隊長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당부합니다.

아울러 오늘 祝賀하여 주시기 위하여 양림회 同門 여러분과 本人은 더욱더 애개가 무거워짐을 느낍니다. 이렇게 늘어난 후배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동문들의 단결과 본 동문회의 發展을 위하여 성원을 거듭 당부 드립니다.

任官將校 同門 여러분! 任官한 여러 동문들은 東國大學校 ROTC 敎團同門會 會員을 祝賀드리면서 여러분의 앞날에 무언이 함께 하길 기원합니다. 感謝합니다.



元容璇 (63영문)

▲남양전기(주)대표이사  
▲ROTC총동문회장

## "영광스런 任官 진심으로 축하, 진취적 자세로 東國의 기상심어주길 당부"

관의 정복을 입은 엄숙한 날입니다. 이 보람찬 임관식여 여러분의 졸업, 임관을 축하하고 그간의 노고를 격려할 수 있게된 것을 3천여 ROTC 동문을 대신하여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오늘의 영광이 있기까지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

제한 여건이 완비된 편안한 조건에서 學問의 길을 걸어온 것이 아니라 艱難條件에서 날이 놀 때 놀지, 남고, 남이잘 때 자지 않고, 남들이 걸때 고독을 씌으면서 文·武를 함께 공부한 성실한 대학생이었으며, 또한 이 나라의 干城으

R.O.T.C 창설이 어언 27개 星期의 역사를 이루었습니다. 우리 1기생들의 지난날을 회상해 봅니다. 그 때에 비하면 교육의 질, 양면에 엄청난 발전은 물론 또한 여러분의

첫째는, 여러분은 어더를 가나 東國人이라는 점을 잊지 말고 임원에 힘 진심만을 실행해 달라는 것입니다. 100년의 역사가 곧 이루어질 우리의 東國의 앞날을 위해 존경과 신

### 新기안내

#### 『佛敎文化史論』

鄭炳朝 著

모교교수로 재직중인 鄭炳朝 (71년월)동문이 불교사학의 인물들을 중심으로 엮은 『佛敎文化史論』을 펴냈다.

2천 5백년 불교의 맥을 한눈에 가늠해 볼수있는 이책은 불교사를 이끈 龍樹, 世親, 馬鳴 등 불교위인들의 이야기와 한국 불교의 융성기, 신라불교, 그리고 현대불교가 4부 23편으로 엮여져 있다.

<한국불교연구원원장>

#### 『불법체류자』

尹凡牟 著

미שלפונ가이며 시인인 尹凡牟 (77미של)동문이 미국유학 3

년간 민족과 모국에대한 그리움을 달래며 쓴 시편을 모아 시집 『불법체류자』를 냈다.

분단시대 낡은 한민족의 양상과 통일문제, 군부독재의 현안을 비판적 시각으로 다뤘으며 한미관계의 향상과 교포문제에까지도 접근, 해외에서 바라본 한반도의 모습을 5부로 나누어 엮었다. <열화당>

#### 『古代韓國佛敎學研究』

佛敎史學會 編

신라를 중심으로 한 고대국가의 불교연구논문들을 불교사학회에서 한데 묶어 출간한책.

『삼국시대 대승불교학에 대한연구』(高翅晉) 『신라유식 사상의 특성』(安路賢) 『신라유식의 사상』(吳亨根) 『인관의 苦惱 戒思想』(鄭炳朝) 등 9편의 논문이 실려있다. <민족사>

### "本會 15대출범...새도약 기대"

#### 새轉職이 15대 출범

○...51차정기이사회가 열린 회의를 열어 모처뿐만아 많은 同門들이 참석해 뜨거운 열기로 가득.

이에 못지않게 15대회장으로 유임된 鄭在哲회장은 취임사에서 『동창회지원운역』 基礎확립과 모교 1백주년 기념사업등을 바쳐 그 분위기는 더욱 고조됐는데.

이제 새로운 전기를 맞은 본회가 그같은 열원을 반드시 실현해 명실상부한 東國 靑龍의 디딤돌을 놓게될날을 손꼽아 기원해 봅니다.

#### 會費納入 최고기록 세워

○...최근 저조했던 동문들의 회비납입실적이 갑작스럽게 상승세를 보여 4백여동문

이 히키를 보내는 진 기록을 과시.

사연인 즉 지난 2월 회장이 직접보낸 서한에대한 동문들



東國대동동창회勸募직인

의 호응이 높았던 까닭이라고. 이 가운데는 멀리 지방에있으면서 동창회에 소원했던 점과 사무국을 격려하는내용을 적은편지까지 동봉해 회비를

### "모교발전의 浬원담긴 獎學金 줄이어"

보내는 동문들이있어 직원들을 감동케했다. 이러한 東國靑龍가 있는한 동국발전이란 될리 있나.

#### 새수출어 獎學金리서

○...신화기가 시작되면서 각 동창회는 모교 후배들에게 장학금을 전달하느라 부산스러움에 울 3월역시 선배들의 은정이 가득 담긴 장학금이 줄이어 흐릿한 모습.

현재 장학금요 책임중이거나 시험중인 학과별, 친목 靑龍友會는 20여개 동창회에 이르고있는데 개학후 일정한 기간을 장학금전달시점으로서 집어 각학과별로 선배배간 우의를 나누는다면 이 또한 훌륭한 東國전통이 되지 않을까...

대우지동차(株)  
89년신형 정통고급승용차 탄생  
임페리얼 (3,000cc) 계약제시  
로망시리즈 (로얄프린스·유크)  
월드카르망 (GSE·올티다·GTE·레이서)  
TEL 553-4712  
487-7539 (야간) 판매과장: 崔錫基 (74연영)  
서울 강남구 역삼동 832-3 영신빌딩 | 충

全國 林野·상가·빌딩 상담 및 안내  
公認仲介士 정중철事務所  
公認仲介士 鄭宗喆 (86경영)  
● 全國不動產仲介業協會 理事  
● 東城區 公認仲介士會 會長  
전화: (사) 234-4777, 253-9321 (자) 233-5799  
서울 성동구 옥수동 243-35 (국동아파트 정문앞)

■ 西獨 보쉬 純正品  
연료節減  
엔진출력증가/수명연장  
■ 적용차량  
현대·대우 全車種  
BOSCH SUPER  
Cu-Electrode  
Thermo stabil  
수입원: 洋陽商事 (대표: 沈載錄·65경영)  
TEL. (02) 213-1392/3107 아르터서비스 244

信一金屬센터(株)  
황동판·동판·황동파이프  
동판지붕재·비철금속  
대표이사 金鍾葉 (84경영)  
본사: 서울 동대문구 용두동 255-58  
☎ 924-6662, 924-6363

世進家具工芸店  
TEL: 736-7887, 2311  
■ 가정용 가구 代表 金文煥 (64 정의)  
■ 사무용 가구  
■ 혼례용 가구  
서울 중로구 교남동 61-2 (서대문-독립문 중간)

생일이면 떠오르는...  
新羅명과  
"실속있고 품위있는 선물을 원하십니까?"  
스타자 상담실 863-4040  
대표이사 홍 평 우 (70경영)

洪性裕 人生劇場

# 將軍의 아들들

\*전6권 완결!  
총 170일만에 250,000부 돌파!



“ 무장독립군으로  
일본군을 대파한  
백야 김좌진 장군.  
그 빛나는 아버지의  
위업에 도전하는  
주목황제 金斗漢의  
끝없는 투쟁의 기록! ”

朝鮮日報 연재소설,  
홍성유 인생극장 (將軍의 아들들)!  
폭발적인 화제 속에 전6권 완결!

홍성유 인생극장 (장군의 아들)은 우리 시대의 진진하게 펼쳐나가는 사회소설이다. 암울한 현실에 대한 분노와 절망감으로 시종 뜨거운 열기를 뿜어내는 이 소설은 박진감 넘치는 사건 전개, 걸작적인 압축, 생생한 인물 묘사를 통해 소설의 참재미가 무엇인가를 보여주고 있다.

金佐鎭 장군의 아들 金斗漢은 암격정의 배양과 뼈아픈 땅에서 주먹계의 황제로 등극, 日帝의 무리들을 한손에 쥐고 뒤흔들며 민족혼을 불태웠던 情義 넘치는 巨漢으로 필박받는 자의 보호자로, 드디어는 政界의 거물로 격동의 한국 근대사에 우뚝 섰던 우리 시대 가장 늠름한 대장부이며 大自由人이었다.

방대한 자료를 토대로 作家가 아심적으로  
썩은이 작품 속의 특이한 인물들은  
기상천외한 행위를 연출하면서 우리를 기막힌  
인생무대로 초대한다. 첫 페이지를 넘기자마자  
속도감 있게 전개되는 드라마틱한 사건들은 우리가  
겪어온 근대정치, 사회상에 대한 새로운 인식과  
함께 인간에 대한 폭넓은 이해를 일깨우고 있다.

日帝의 무리들을 한 주먹에 쥐고 뒤흔들었던  
격동의 시대 풍운아들의 극적인 삶과 죽음!  
울분 속의 기행과 폭력, 뜨거운 애정의 의리!  
한국 근대사의 생생한 모습 (將軍의 아들들)!

野史 에도 正史에도 기록되지 않은 술한 사람  
들이 땅을 갈밭한 일본 야구자, 그 거리를  
배회하는 거렁뱅이 접대부들, 민족 수난의 암흑기에  
상처받은 자들과 함께 하며 자유와 정의의 편에  
서서 눈부시게 활약했던 金斗漢이 비인간화 시대를  
살아가는 현대인들에게 던지는 긴 감동의 파문!

\*전6권/각권 300페이지/각권 값 3,300원 \*날권판에 \*서점에 있습니다.

고려원 • 연정부: 353-6441-3  
원정부: 739-774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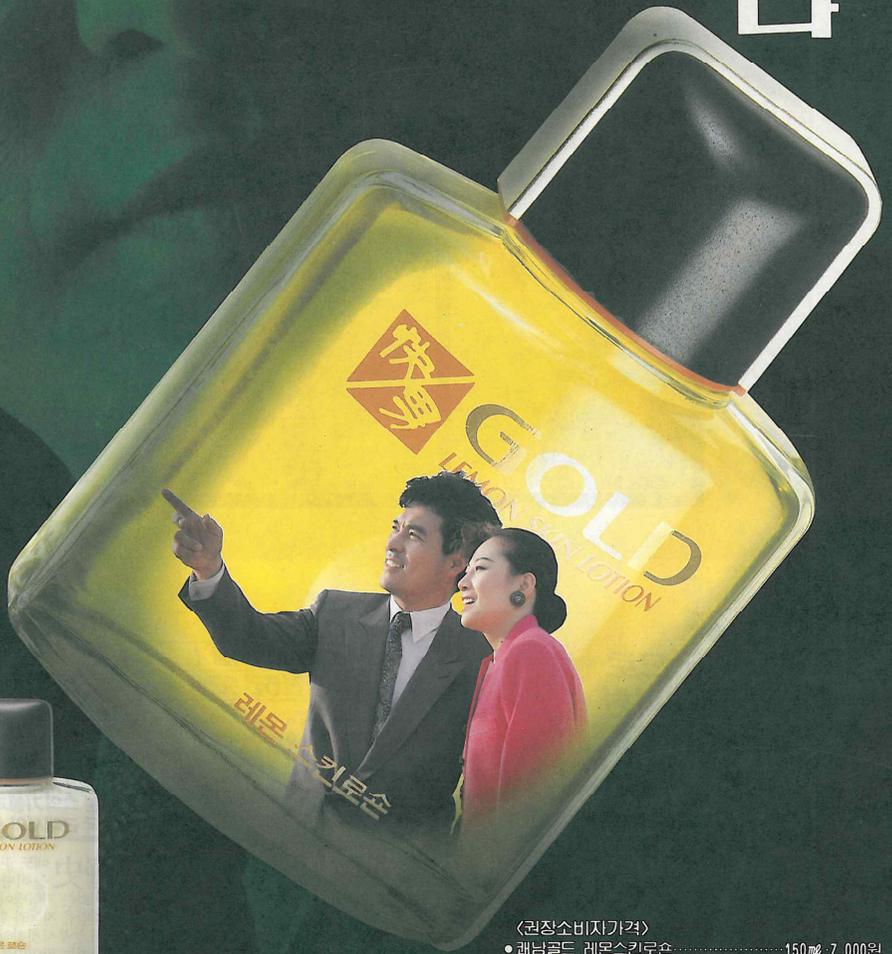
희호은행

생명공학에서도 앞서가는 태평양화학

# 함께 있는 시간이 좋다

## 자연성 남성화장품 — 캐남골드 —

남자의 피부에 자연의 손길은,  
 남자의 마음에 사랑의 향기를 — 캐남골드.  
 캐남골드는 스킨로션의 피로,  
 잦은 면도 등으로 거칠어지기 쉬운  
 남성피부를 탄력있고  
 윤기있게 가꾸어 줍니다.  
 남자에게, 피부관리는 곧 자기관리,  
 자연성분이 함유된  
 피부보습용 남성화장품 — 캐남골드.



<권장소비자가격>

- 캐남골드 레몬스킨로션 ..... 150ml 7,000원
- 캐남골드 레몬로션 ..... 150ml 7,000원

인류를 아름답게 사회를 아름답게  
**태평양화학**

**快男 캐남골드**